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성탄축하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0-6세 유치원까지) 아동세례 (7-12세 초등생)  
세례·입교 (13세 이상, 중학생 이상)
- 대강절 연속기도를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진행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멩쟁이학교 종강여행이 7일(화)부터 9일(목)까지 속초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47 호  
2021년 12월 5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섬김의 삶

멋쟁이학교가 2002년 처음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학생들의 모습에서 도리어 깨달음을 얻고 배우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멋쟁이학교는 주간 중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에 삶의 내용을 서로 밀접하게 알게 됩니다.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고, 다양한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 학생 간의 관계 안에 밀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멋쟁이 교사의 특권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쟁이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정리할 때, 선생님들 전체와 학생 한 사람씩 만나는 학기 말 면담을 통해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성장 발전한 면이 무엇이 있었는지,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다양한 항목으로 정해진 평가서를 스스로 작성합니다. 학기 말 면담에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작성한 평가서를 소개해주고, 선생님들은 한 학기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했던 내용을 그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모든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 쉽게 들어보기 어려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 주기에, 많은 학생이 그 내용을 수용하고, 학기마다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멋쟁이학교는 중·고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최고 학년이 되는 6학년들의 면담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1학년 때 초등학생 티를 채 벗지 못한 모습에서, 이제 성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앞둔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많습니다.

비단 바뀌는 것은 외모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6년의 과정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내놓는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삶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감동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멋쟁이학교에서의 6년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다양한 사람들과 특히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멋쟁이학교에서 생활 하면 자기 또래뿐만 아니라 중1 학생이 고3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공동체 학교 안에서는 꾸러기 학생으로부터 어린이 학생들까지, 생활공동체 어른들을 비롯하여 무림 사랑방에 속한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알고 생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멋쟁이학교에서는 주5일을 함께 먹고 자며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에, 자신과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학생들의 실제적이고 생생한 삶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다보니, 마지막 면담 때 그들이 전해주는 말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학기말 면담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자신이 멋쟁이에서 관계하는 법을 배우면서 느끼게 된 중요한 점은 바로 섬기는 것이라 정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나 말을 듣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내용을 충분히 알게 되면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음성과 문자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다사다난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직 완성된 인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섬김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오래 맺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대답은 어쩌면 몹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펼쳐갈 꿈과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 한주간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  
<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누가복음 4:31~44

제목 : 날이 새니, 외딴곳으로 가셨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64 96 390 484

### 1. 내용관찰(What)

- 1) 31~37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 2) 38~41 시몬 장모집에서 고치시다.
- 3) 42~44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 2. 내용의 의미(Why)

- 1) 예수님께서서는 틈이 나면 무리를 떠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 2) 예수님께서서는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보이셨습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 3. 의미의 적용(How)

- 1) 기도의 자리와 분량을 지키자.
- 2)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자.
- 3)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자.

## 지금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들 말합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다시’라는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이라는 말로 오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거처로 정하신 인간의 실존을  
주님은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주님이 이미 저희에게 오  
셨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끊임없이 드러나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모  
든 존재의 본질이 당신의 존재에 맞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변화가 더욱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더욱더 오셔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저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모습이 더욱더 철저히 뿌리뽑히고 파괴되어야 합니다. 영  
원하신 당신께서 유한한 생명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당신의  
영원을 입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오십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오심은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하나의 강림절, 이 계절에 주님  
이 진실로 오셨음을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지금, 강림의 한 때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영원히 당신 안에, 그 복된 영원한 때를 살게 하소서.

칼 라너. [사림의 기도를 위한 선집] 중.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42 : 1-2, 5  
64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엘 2 : 13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105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3 : 21 - 22, 4 : 1 - 13  
459

설교자  
사랑방

“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 권재만목사

###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6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55(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임진숙 / 꽃꽂이 : 김영하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니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셨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지셔서 사막으로 나가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돌로 먹을 것을 만들라. 절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3가지였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가지신 예수님께서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악마는 인간이 의지하는 권력, 안전, 인기라는 욕구들을 통로로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함과 외로움, 불안함을 느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셨습니다.

사랑과 충성으로 기다립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본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충성을 다 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충성을 드려야겠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11월의 마지막 월요일 꾸러기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지키려 분리배출 방법을 자세히 배우고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화요일에는 공동체 주변의 쓰레기를 치울 계획이었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간식을 먹고 나면 정리할 때 페트병에 붙은 스티커 라벨도 열심히 뜯어냅니다.

12월을 맞으며 예수님 탄생이야기를 나누고 교구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 풍경을 자연예배당 한쪽에 설치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독일에서 오신 울리안, 엘라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꾸러기들은 반가우면서도 신기한지 미소는 띠지만 눈은 왔다갔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도 긴장하시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꾸러기들이 배꼽인사로 “안녕하세요.” 하니 그제야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독일 인사를 가르쳐주시니 신기한 발음에 친구들이 깔깔 웃으면서 따라합니다. 노트북으로 귀여운 개, 고양이, 코끼리 등 잘 알고 있는 동물사진을 보여주시며 독일어로 동물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꾸러기들은 아주 씩씩하게 따라하면서 배웠습니다. 독일의 전통 노래도 들려주셨는데 요들이 나오니 마지막에는 춤추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아주 멋진 성들을 보여주시며 독일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놀이처럼 받아들이며 독일에 대해 배워본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칼바람이 몰아친 이번 주, 아이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끝까지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던 친구들도 이번 주말만큼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연신 '춥다.'를 입에 담았습니다. 이런 날씨 때문인지 유독 결석과 병원을 다녀

배움과 가르침

오는 친구들이 많았던 주였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학기이다보니 가능하면 빠지지 않길 바랬지만 감기 증세가 있는 친구들을 그냥 오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학년말 발표회와 여러 활동들을 친구들 없이 진행해야했던 어린이들도, 준비하던 선생님들도 많이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주제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추억하길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제발 코로나19가 끝나 추억으로만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그 바램이 이뤄질 시간이 조금 늦어지겠지만 추억 속으로 사라질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코로나관련 사건을 찾아 조사하고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램처럼 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조익 >

### 멋쟁이학교

종강을 맞이하는 주간이 왔습니다. 멋쟁이 학생과 교사가 한 자리에 앉아, 한 학기 및 1년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기말면담 시간이 주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담없이 참여하는 멋쟁이는 아무도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멋쟁이들의 성장과정을 확인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함께 만끽합니다. 이번 기말면담 또한 그렇게 가슴벅찬 시간들로 함께 보냈답니다.

토요일에는 멋쟁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멋쟁이 종강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하여 학부모님들도 많이 찾아와 반가움을 더 해주셨고, 또 맛있는 식사로 멋쟁이들의 배를 뽕뽕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졸업한 선배들이 찾아와 간식도 전해주고, 여러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로 응원해주었습니다. <Soul>이란 제목으로 시작한 종강발표회는 여러 의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에 몇몇 멋쟁이들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장이 열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종강여행이 남아있습니다. 멋진 시간들로 가득한 여행이 되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2021년을 보내며

저물어 가는 2021년의 마지막 12월에 글을 쓰려고 하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서 이 글을 쓰려고 한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십일월에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 덕에 가족들은 자주 만났지만.

먼저 큰매형이 소천 하셨다.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그분은 우리가족의 정신적 지주였다. 돌아가신 뒤로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흔들리고 생각도 많아져서 지금까지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더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평상시에도 빨리 잠이 들지 못하는데……

그 다음주에는 매제와 동생이 장로장립과 권사취임을 해서 만나 축하해주고… 세번째주에는 내생일이라고 온가족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해주었는데 조카들이 영상편지를 만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었다. 그날은 좀 울컥했다.

생각해보면 내가 잘 한 것도 없이 살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해주어서 항상 감사하다.

돌이켜보면 사랑방공동체에 와서 산지도 삼십이년이고 무림리에 와서 산지도 이십오년이 되어간다.

살아온 세월에서 생각을 해보니 무림리에서 살아온 세월이 가장 길다. 고향에서보다도 가장 길게 살아온 곳이 이 무림리, 우리공동체이다. 내가 역마살이 있어서인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총각때에는 한곳에 정착을 못하고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마음잡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힘이 많이 들었다. 다행히 무림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와서 살게 되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내자신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짝 짜여진 시간표대로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게 나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몸담고 살아갈 수 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나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신 목사님 이하 모든 식구들 항상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나송주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디모데전서 2장 1-6절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코로나 전파에 대한 기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는 3800명이 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변이가 나타나,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8개국에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의 변이는 백신에 대한 저항력과 높은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어 많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은샘공동체

1) 장애인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2) 자립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세워진 은샘치아바타 빵집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3) 장애인 작업장이 세워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학교들의 2학기가 잘 마무리 지어지도록.

한 주 한 주 진행되는 대강절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도록.

##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왔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날이 많아지고, 공동체 마당의 나뭇잎은 이제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생명을 다시 움틔우기 위해 몸을 한껏 움츠린 채로 겨울을 지내는 모양입니다. 지금 공동체학교는 학기말 정리가 한창입니다. 멋쟁이학교에서는 학기말 면담과 종강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종강 발표회는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참석한 분들 모두 준비한 발표회를 즐기고 감동을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졸업생들이 방문하였는데,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멋쟁이의 관계성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역을 지키느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점차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